



U-17 청소년 월드컵 축구

-한국, 오늘 오후 8시 코스타리카전

빠른 측면 공략으로 승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한 발만 뒤질수록 치면 바로 벼랑이다.'

아침차게 '4강 목표'를 내걸고 세계 무대를 향해 출항한 17세 이하(U-17)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처한 현주소다.

홈에서 열렬한 축구 팬들의 성원을 등에 업고 있음에도 이점을 살리지 못한 채 배수진을 칠 상황에 놓였다.

박경훈 감독이 이끄는 청소년 대표팀은 21일 오후 8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2007 국제 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조별리그 A조 운명의 2차전을 치른다.

상대는 북중미 코스타리카.

본선에 7번째 오른 코스타리카는 북중미에선 미국, 멕시코와 더불어 축구 강호로 꼽힌다.

그렇지만 24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를 토고보다는 전력이 처진다는 평가다. 코스타리카와 토고는 지난 18일 1차전에서 1-1로 비겼다.

주성환-최진수, 박재철-최진수 카드 가능성

배천석 원톱... 코스타리카 느린 수비 허점 노려

박경훈 감독은 1차전에서 폐루에 0-1로 진 뒤 '측면 공격 실패가 패인'이라고 지평했다.

플레이메이커 윤빛가람(부경고)에게 사이드로 볼을 배급할 것을 주문했지만 좌우 날개들이 자꾸만 중앙으로 몰리다보니 밀집 수비에 막혔다는 진단이다.

박경훈 사단은 하지만 이번에도 측면 공격에 승부수를 띄웠다.

특히 코스타리카는 기술분석팀이 전력을 평가해본 결과 수비수들의 순발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체력은 좋지만 느린 수비진이 막아선다면

빠른 측면 공격이 한층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게 박 감독의 계산이다.

청소년 대표팀은 폐루전에선 막혔지만 다시 한 번 배천석(포철공고)-김정현(현대고)-윤빛가람 리인이 기대를 걸어보기로 했다.

배천석이 전방 원톱으로 깊숙이 서고 김정현이 뒤에서 새도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으면 윤빛가람이 2선에서 볼을 찔러주는 '공격 방정식'이다.

여기다 측면 공격의 열쇠를 퀼 좌우 날개로는 주성환(광양제철고)-최진수(현대고) 또는 박재철(신갈고)-최진수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걸리면 죄다 넣겠다'고 기세 등을 했던 원톱 배천석은 폐루전에서 무력했다. 자신의 탓도 있지만 그만큼 찬스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17경기에서 9골을 뽑아낸 결정력을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쏟아부어야만 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독일-콜롬비아 화끈한 골 공방

F조 1차전... 3-3 승부 못가려

정통 유럽과 남미 축구를 구사하는 독일과 콜롬비아가 화끈한 골 공방 속에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독일과 콜롬비아는 20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07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전후반 세 골씩 주고받아 3-3으로 비겼다.

1985년 제1회 중국대회 준우승팀 독일은 8년만에 돌아온 본선에서 남미의 강한 힘을 확인하며 '죽음의 조'로 꼽히는 F조에서 16강 진출부터 걱정하게 됐다.

2003년 이 대회 4강에 오른 콜롬비아는 1-3으로 패색이 짙던 후반 21분 크리스티안 나사리트가 만회골을 뽑아낸 뒤 후반 43분에도 극적인 동점골을 뽑아내며 곤질긴 승부근성을 보여줬다.

E조에서는 겨우 대륙의 선봉 튀니지가 벨기에에 4-2로 누르고 첫 승을 올렸다.

전반 20분과 24분 우사마 부간미, 칼레드 아야리의 골로 앞서간 튀니지는 벨기에의 반격에 몰리면서 널 데포프, 케빈 키스에게 연속골을 내줘 동점을 허용했지만 전반 종료 직전 유세프 음사크니가 결승골을 뽑아내고 후반 34분 음사크니가 폐널타깃으로 빼기골을 꽂아 벨기에에 완파했다.

튀니지는 후반 7분 선제골을 주인공 부간미가 뇌장당했지만 수적 열세를 딛고 오히려 스코어 차이를 벌리는 활력을 과시했다.

한편 지난 20일 경기에서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가 아시아 대표하는 시리아와 득점없이 비기면서 무승부로 1차전을 마쳤다. 또 일본은 아이티를 3-1로 제압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러 프로축구 김동진

데뷔골·추가골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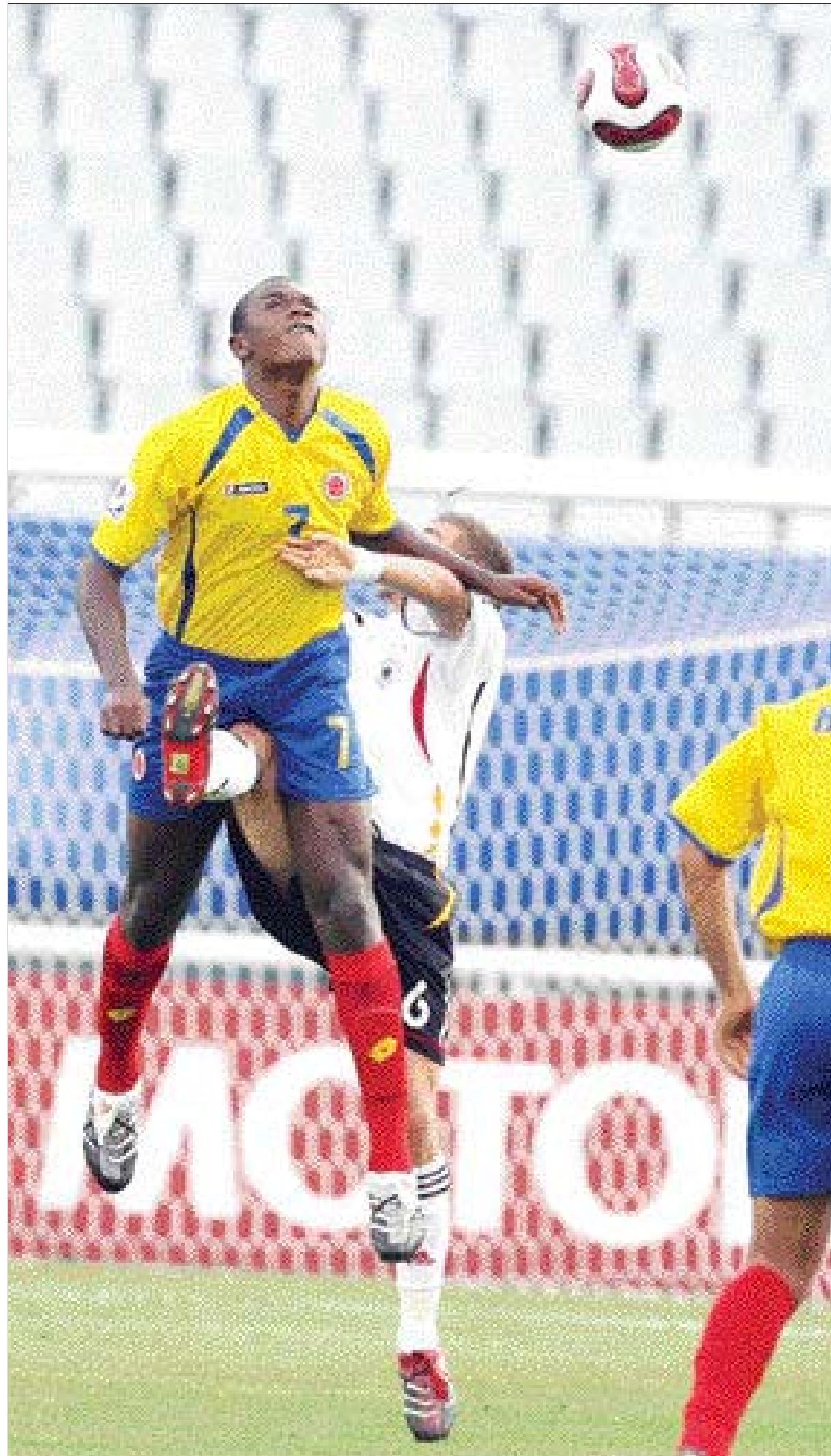
러시아 프로축구에서 뛰는 수비수 김동진(25·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이 리그 데뷔골과 추가골을 연달아 끌었다.

김동진은 20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 페트로프스키 구장에서 끝난 FC 톰스크와 2007 러시아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선제골과 결승골을 잇따라 뽑아냈다.

이번 시즌 1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김동진은 전반 17분 안드레이 아르샤빈의 도움을 받아 선제골을 넣은 뒤 1-1로 비기고 있던 전반 37분 코너킥 상황에서 결승골을 성공시켜 팀 승리를 이끌었다.

김동진은 지난해 6월 러시아리그에 진출한 뒤 1년여 만에 1,2호골을 한꺼번에 기록하는 기쁨을 맛봤다. 제니트(승점 37)는 2연승으로 선후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승점 42)에 이어 리그 2위를 유지했다.

김동진과 함께 뛰는 수비형 미드필더 이호는 교체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아! 조심

20일 오후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07 FIFA 세계청소년월드컵 콜롬비아-독일 경기에서 나자리스(콜롬비아·왼쪽)와 풀체(독일)가 공중볼을 다투고 있다.



안시현 막판 뒷심... 3위 '껑충'

오초아 우승... 다승·상금 1위

LPGA 캐나다여자오픈 최종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평정에 도전하는 '코리안 시스터스'가 넘어야 할 장벽은 역시 새로운 '골프여제'로 등장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였다.

오초아는 20일(한국시간) 캐나다 에드먼턴의 로열 메이페어골프장(파71·6천 505야드)에서 막을 내린 LPGA 투어 캐나다여자오픈에서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2위 그룹에 4타 앞선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오초아는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끓어 2언더파 69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6언더파 268타로 준우승자 폴라 크리머(미국·271타)를 3타차로 따돌렸다.

전날 코스레코드를 세우는 등 2,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13개의 버디를 쓸어 담았던 오초아는 이날 9번홀(파4)과 17번홀(파4)에서 1타씩을 잃었지만 우승 가능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의 감격을 누린 지 14일 만에 우승컵을 보탠 오초아는 시즌 5승으로 다음 부문 1위와 상금랭킹 1위를 질주했다.

통산 14승째를 올린 오초아는 지난 4월 안나카 소렌스탐(스웨덴)의 7년 천하를 끌내고 퀘찬 세계랭킹 1위 역시 장기집권을 예고했다.

"이렇다 할 실수가 없이 저를 대회였다"고 자평한 오초아는 이번 대회에서 평균 드라이브샷 비거리 270.5야드에 그린 적중률 83.3%, 그리고 라운드당 평균 28.75개의 페팅 등 균형잡힌 플레이를 펼쳤다.

오초아의 상승세에 한국 선수들은 안시현(23·사진)이 3위를 차지하는 등 3명이 '톱10'에 이름을 올린 데 만족해야 했다.



20일 캐나다 에드먼턴 로열 메이페어골프장에서 막을 내린 LPGA 투어 캐나다여자오픈에서 1위를 차지한 로레나 오초아가 경기 후 우승컵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라운드에서 공동 선두에 오르기도 했지만 3라운드 부진으로 우승 기회를 날려버린 안시현은 8번홀부터 18번홀까지 11개홀에서 6개의 버디를 쓸어담은 뒷심을 발휘하며 5언더파 66타를 때려내 3위(10언더파 274타)로 순위를 끌어 올렸다.

시즌 초반 3개 대회 연속 '톱10'에 올랐던 안시현은 시즌 최고 성적과 함께 14만 8천 711달러의 상금을 쟁였다.

3타를 줄인 장정(27-기온은행)도 전날 공동 7위에서 한 계단 뛰어上去 1위를 차지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였다.

'메치플레이의 여왕' 이선화(21·CJ)는 보기는 한계도 없이 버디만 7개를 골라내는 무결점 샷을 뽑아내 공동 10위(7언더파 277타)까지 고속 엘리베이터를 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나상욱·위창수 톱 10 진입 실패

美 스니데커 우승

PGA 원덤챔피언십 최종

나상욱(23·코브라골프)과 위창수(35·테일리메이드)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원덤챔피언십에서 톱 10 진입에 실패했다.

나상욱은 20일(이하 한국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의 포리스트 오크스 골프장(파72·7천311야드)에서 열린 최종 4라운드에서 4타를 줄이며 분전했으나 합계 11언더파 277타를 쳐 공동 37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공동 60위에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나상욱은 첫번째 10번홀(파4)에서 보기 1개를 범했지만 이후 6개의 버디를 잡아내며 상승세를 냈다.

하지만 8번홀(파3)에서 다시 1타를 잃어 순위를 더 끌어 올리지 못했다.

시즌 세번째 톱10 진입을 기대했던 위창수는 1번홀(파4)부터 시작한 전반부에서 버디는 1개에 그치고 보기 3개를 범한 뒤 13번홀(파5)에서 1타를 줄이는데 그쳐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공동 49위에 머물렀다.

나상욱과 위창수는 톱10 진입에는 성공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